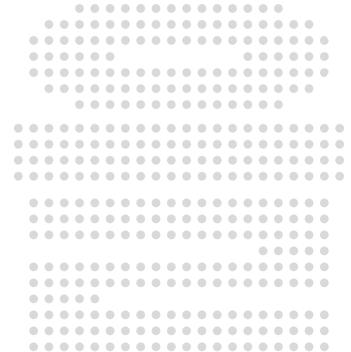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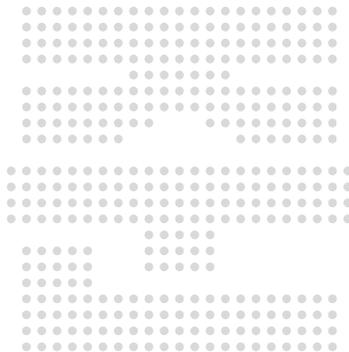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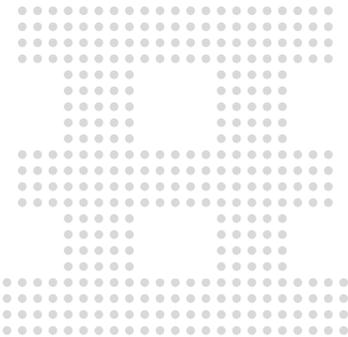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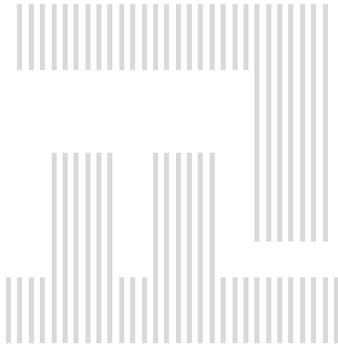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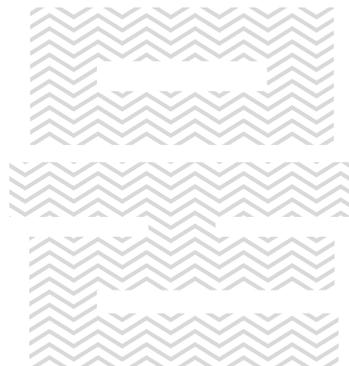
온앙을

경북 교육 WEBZINE

세계 교육
표준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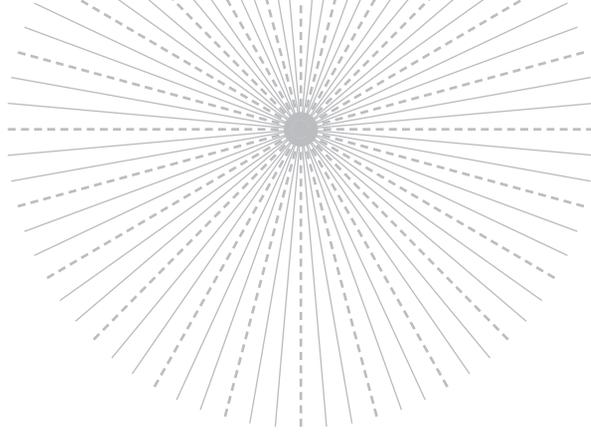


따뜻한 경북 토착
세계 교육 표준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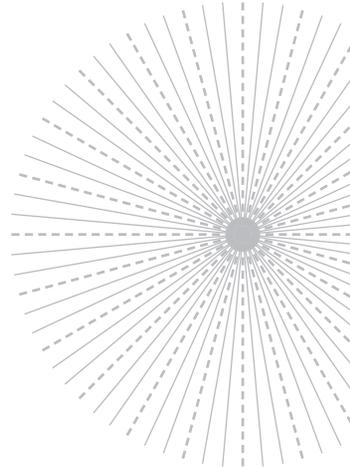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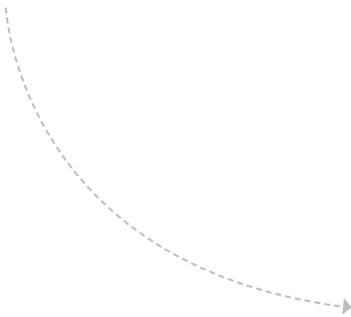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1 말하다, 경북교육

06 교육감과의 기획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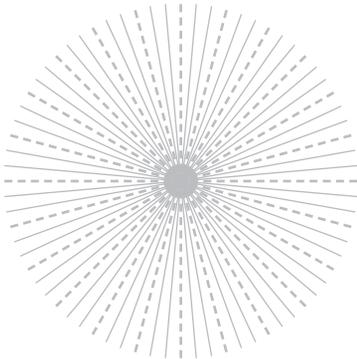


2 보다, 경북교육

14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

20 Eureka for Agency and
Development with G.B.E.
박재선(진량초등학교 교사)

24 나의 기쁨을 말한다
김진미(예천여자중학교 교사)



3 듣다, 경북교육

- 38 **체험 분야**
- (1) 수학체험관
 - (2) 발명체험관
 - (3) 한국어교육센터

- 42 **온라인 분야**
- (1) 공동교육과정
 - (2) 온라인학교
 - (3) 사이버독도
 - (4) 사이버박물관

- 47 **글로벌 리더 분야**
- (1) 외국유학생 입학
 - (2) 단디짜꿍
 - (3) 교육정보화지원

- 52 **디지털 전환 분야**
- (1) 디지털 전환, 가치 창출
 - (2) 디지털 전환, 업무 경감
 - (3) 온무실 두 돌을 맞이하며

온방울

경북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 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PART 1

말하다, 경북교육

교육감과의 기획대담

일시 2023. 11. 8.(수) 11:00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4층 스마트 오피스 검무서재

대담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정기효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은 2018년 '따뜻한 경북교육, 대한민국 표준으로'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에서 한 단계 더 높인,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3년과 2024년은 세계교육 표준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오는 2024년은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24년, 경북교육청이 생각하는 지금의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 슬로건의 의미, 그리고 세계교육 중심에 우뚝 서겠다는 그 자신감을 말한다.





1



2



3



Q 교육감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네, 반갑습니다.

Q 이곳 햇살이 참 좋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곳은 건물 옥상이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애길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A 그렇죠. 이 곳은 준공하고 몇 년 동안 건물 옥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카페처럼 아늑한 심의 공간으로 조성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법령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의논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되었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라는 말의 사례로 가끔 언급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스마트 오피스에서 잠시 쉬거나 미팅을 하면서 참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력을 듣고 나니 저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Q 오늘은 교육감님과 'K-edu로서의 경북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열린 경북국제교육포럼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무대에 올라 K-edu, 경북형 미래 직업교육 모델을 선포하셨습니다. K-edu를 거론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경북교육 대한민국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2018년 민선 4기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경북교육의 비전을 '따뜻함'이라는 단어에 담았구요. 이를 실행하여 도달점으로 삼은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겠다는 의지를 슬로건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Q 그런데요. 그 당시 '표준'이라는 말이 지닌 '일반적인 것, 평균' 등의 의미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도 더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탈표준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1. 하와이주 교육부와 업무협약
2. 경북국제교육포럼
3. 스마트오피스 회의

A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북교육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표준'의 의미를 '새로운 지향점이자 본보기라는 전범(典範)'으로 설명드리자 수긍을 하시더군요. 지금은 아마도 표준이라는 말이 지닌 이러한 의미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Q 그러면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교육에 있어 세계적인 기준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향점이자 새로운 본보기'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A 네, 좋습니다.

Q 2022년 6월 민선 5기를 시작하시면서 '따뜻한 경북교육'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슬로건은 '세계교육 표준으로'로 한 단계 더 높이셨습니다. 경북교육의 지속성과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요?

A 아주 훌륭합니다. 갈수록 교육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걸 절감합니다. 백년대계란 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교육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탄탄한 바탕 위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육은 곧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에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시켜야 하겠다는 저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전과 슬로건은 그 조직의 존재 근거를 나타내므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과 세계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Q 최근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K-POP, K-FOOD, K-CULTURE 등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가 극찬한 한국의 교육, 즉 K-EDU도 세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교육 표준으로서 K-EDU의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음, 한국교육의 양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 한국교육은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식민 역사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는 점에도, 입시교육이 낳고 있는 많은 부작용도 동시에 인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한국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적 여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의 한국교육 K-edu는 충분히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K-EDU에서 'K'는 경북입니다.

경북교육의 일원으로서 무척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저도 K-EDU에서 'K'는 경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경북교육=K-EDU=세계교육 표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 좋겠습니다.

Q **현재의 경북교육이 K-EDU의 대표이자 세계교육의 표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사례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A 제가 최근에 아시아의 몇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관계자를 만나고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4개국의 49명의 학생이 우리 경북의 특성화고로 입학합니다. 자율형사립고인 김천고에도 중국 등 3개국 16명의 유학생이 입학하구요.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의 교육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 중앙아프리카 총리, 하와이주 교육감, 필리핀 따이타이 시장단 등이 경북 교육과 협력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제 나눔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오랫동안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고 현지 및 초청 교원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는 추가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K-EDU로서의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 표준으로서의 K-EDU가 되자면 국제교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북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남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교육과정에 있어 IB라든지, 핀란드의 학교 자율성 등이 그런 예가 아닐까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K-EDU, 세계교육 표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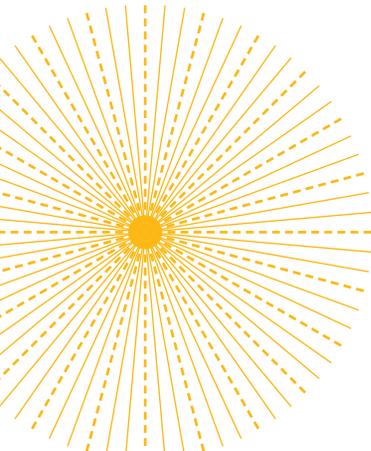
A K-edu의 'K'가 경북이고 세계교육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의 바탕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간은 미래이고 살아갈 무대는 세계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교육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교육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웃 나라와의 나눔에도 소홀하면 안 되겠죠. 나아가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교육감님의 평소 말씀을 바탕으로 K-edu BI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된 슬로건 Be the global standard, 세계 표준이 되자!를 넣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A 제가 본래 영문자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K-edu는 세계와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영문 슬로건의 첫 글자를 따니 BGS가 되는군요. K-pop에는 BTS가 있다면 K-edu에는 BGS가 있다!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BGS 파이팅입니다.

와우! 멋진 말씀입니다. K-edu와 BGS, 세계교육 표준까지 머리 속으로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은 경북교육이 K-edu의 대표 주자로서 세계교육의 표준을 만드는 원년이 되길 바라고 모두가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은 곧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에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시켜야 하겠다는

저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 2

듣다, 경북교육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을 이루는 구성원의 생각이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모여 교육을 이룬다.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구성원 뿐 아니라 경북교육에 대한 고민과 바람까지 실어 보다 많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2024년, 경북교육이 나아갈 '세계교육 표준'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속속들이 들어본다.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

**Eureka for Agency and
Development with G.B.E.**
박재선(진량초등학교 교사)

나의 기쁨을 말한다
김진미(예천여자중학교 교사)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

2024년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구성원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교육구성원의 인식·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에 용이한 설문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경북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5문항, 경북교육에 대한 만족도 2문항, 경북교육에 대한 기대정도 2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01 설문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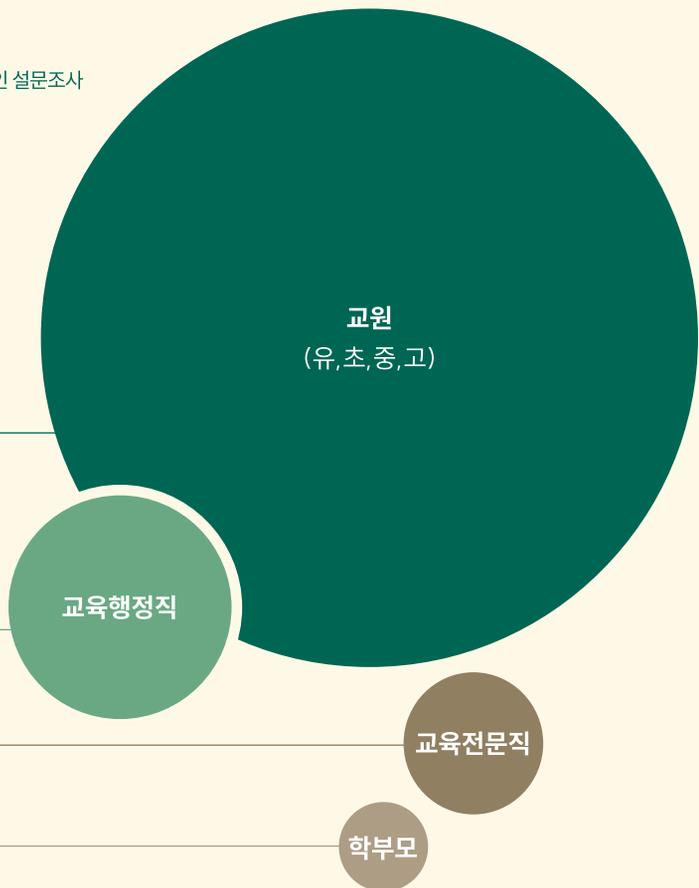
설문기간 2023. 11. 14.(화)~11.19.(일), 6일간	참여인원 901명
대상 경북교육구성원 (교원(유·초·중·고),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학부모)	방법 유레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 조사

700^명 77.69%

110^명 12.21%

62^명 6.88%

29^명 3.22%



02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슬로건에 대한 인식 정도

본 문항은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관심도,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에 대한 슬로건에 대한 인식정도, 경북교육의 뛰어난 정도, 신뢰도, 향후 참여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은 모든 문항에서 학부모와 교원에 비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Q1. 나는 평소에 경북교육에 관심이 많다



Q2. 나는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라는 슬로건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



Q3. 나는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될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Q4. 나는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의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Q5. 나는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03 경북교육 정책 만족도 및 기대정도

본 문항에서는 경북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 정도를 확인하였다. 교육전문직과 교육 행정직의 만족도와 기대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와 교원은 그 뒤를 이었다. 교원과 학부모는 교육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육구성원으로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만족도가 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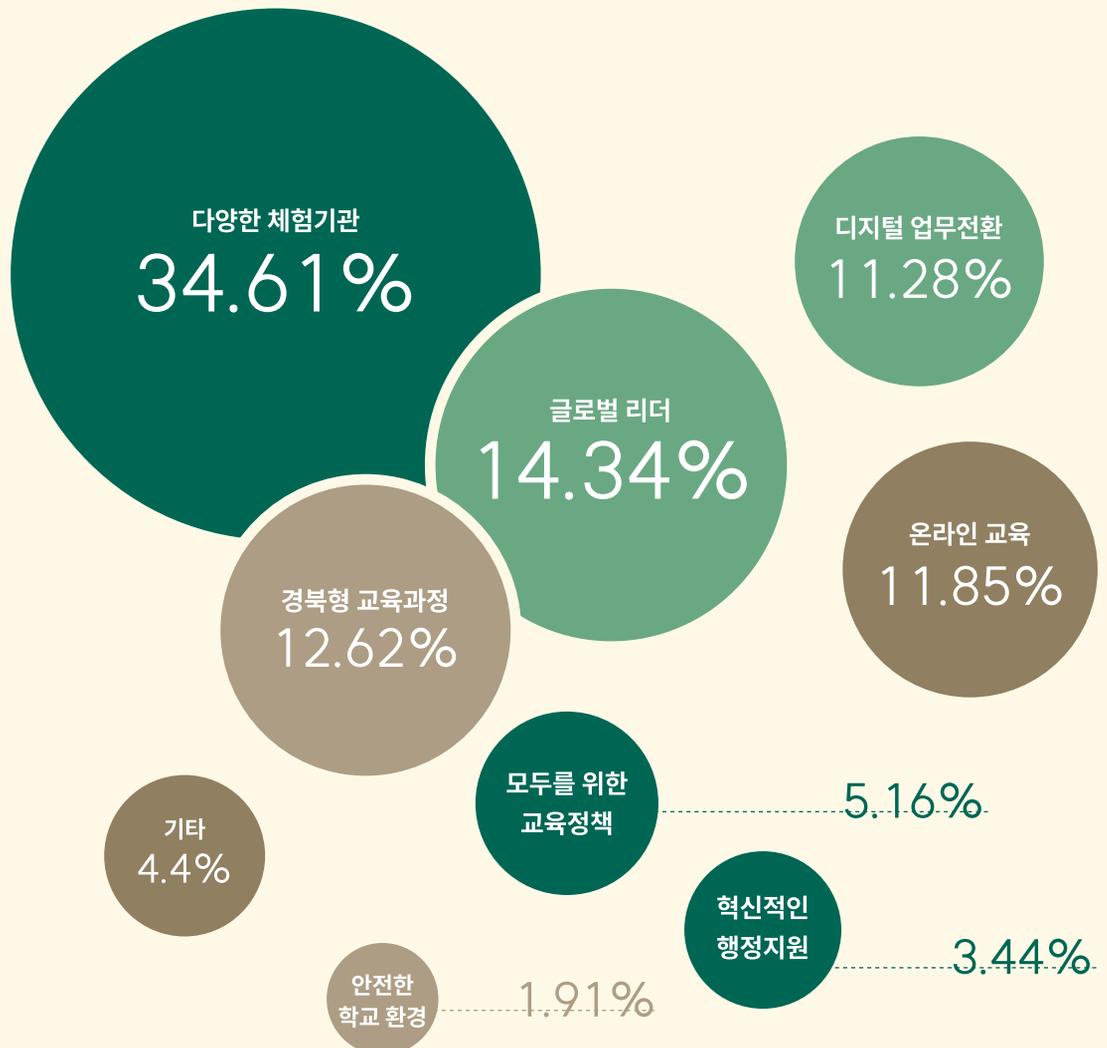
Q1. 나는 현재 경북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

Q2. 나는 앞으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04 만족하는 정책 및 기대하는 정책

현재 경북교육청 정책 중 만족하거나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다양한 체험기관 운영을 꼽았다.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센터, 발명체험교육관, 한국어교육센터 등 학생들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고 놀이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교육 기관을 1순위로 꼽아 체험교육의 명문 경북교육을 체감케 했다. 2순위로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꼽았다. 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간 국제교류, 그리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까지 경북교육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순위로는 경북형 교육과정 운영을 꼽았는데 경북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도농상생학교, 원격화상 수업 등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경북만의 특화교육을 발전시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온라인 교육 운영, 디지털 업무 전환 등이 이었다.



05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1순위로 글로벌 리더, 2순위 경북형 교육과정, 3순위 업무경감(인력 지원) 등을 꼽았다. 그 외에는 교육의 본질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교육본질 집중 및 내실화', '교원 보호, 교권 회복',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체험기관 운영' 과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역사회와 연계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디지털 관련 '디지털 업무 전환', '이공계 관련 교육',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기자재'와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리고 의사를 결정할 때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청렴, 공정, 의사결정의 투명성)',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현장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표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었는데 '세계교육 표준에 대한 고민의 명확화와 공유 필요', '정책 내실화', '혁신적인 정책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06 종합 분석

경북교육에 대한 관심, 만족, 기대정도는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학부모, 교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 정책 중에서는 체험교육, 글로벌리더, 경북형 교육과정 등을 만족하며 앞으로의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리더, 경북형 교육과정, 업무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구성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요약하자면 세계적인 감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북의 특성을 놓치지 않는 경북형 교육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는 따라가되 고유성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그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은 사회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 더 빠르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더 넓게, 집중이 필요한 곳에는 더 깊이 있는 정책으로 다가갈 것을 본 지면을 빌어 약속한다. 2024년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준 교육구성원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를 실현하는 도약판이 될 것이다

Eureka for Agency and Development with G.B.E.

01 Standard tuning

저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어쿠스틱 기타를 홀로 익혀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쳐보라 권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동아리방 구석에 세워진 누구 것인지도 모를 그 낡은 합판 기타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코드를 몇 개 외워 어설피 짚어가며 노래하다 보니 정태춘이나 김광석과 같은 음유시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두들기고 치다가 어느 날은 줄을 끊어먹고 말았습니다. 굵은 6번 줄부터 얇은 1번 줄까지 저마다의 장력을 버티는 이 현악기가 무척 예민한 악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튜닝 핀을 돌려 줄을 갈아 끼우고 미, 라, 레, 솔, 시, 미 외워가며 조율하는데, 그걸 지켜보던 어느 선배가 E-A-D-G-B-E라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음계로 조율하는 기타의 스탠다드 튜닝이었습니다.

02 #(Sharp)과 b(flat) 사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오랫동안 '이기주의'의 동의어로 오해받았습니다. 독립적 개인들의 선택은 순응을 요구하는 시대와 대체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선 필수 불가결했을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들은 조금씩 그러나 급속히 무너져내렸습니다. 기존의 표준 음계 어딘가에 불만 있는 #이나 b의 포지션에 있었던 개인들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동아리 뒷풀이에서, 군대 생활관에서, 신규교사 환영회에서 작동했을 우리 안

의 크고 작은 '스탠다드 튜닝'에의 강요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층 더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AI의 진화와 변이 바이러스가 빚어낸 팬데믹의 광풍 속에서, 교육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성 그 자체'를 지향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자 주도성(주체성)'도 질서 정연한 대집단보다는 탄력적인 소집단에 어울립니다. 우리는 정해진 지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보다, 학습자 개인의 자율적 성장 과정에 주안점을 두려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어딘가 모난 #이거나 볼만 많은 b의 포지션에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칸의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석권하였고, 월트디즈니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오스카상을 거머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평생 가슴에 새겨왔다는 그 문장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거둔 성장은 곧, 대안적 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의 우주를 넓히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03 # (Sharp)과 b (flat)을 품는 Open tuning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이, 그저 홀로 기타를 수련해 온 저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있습니다. 오선지를 보고선 핑거링 연주를 할 수 없다거나, 가끔 좋은 악상이 떠올라도 악보에 바로 옮기지 못한다거나, 기타를 쥔 자세가 다소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연주 실력이 제자리여서 흥미를 잃고 고심하던 차에, 변칙 튜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 b를 품는 변칙 튜닝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기호로 이뤄진 텍스트들을 읽고 이해하며 생각을 건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듯한 상황도 생깁니다. 저는 때로는 전달자 혹은 번역가가 되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비슷하다가도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오해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실수가 애드립 되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은 피타고라스와 같은 수학자가 되었다

가도, 톨스토이처럼 글 쓰며 다윈처럼 탐구합니다. 마음을 노래하고 세상을 소모합니다. 열렬한 웅변가와 사색하는 철학자가 공존하는 이 세계는 혼돈(Chaos)과 질서(Cosmos) 사이 어디쯤입니다. 우리는 방랑하고 유명하지만,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을 중력처럼 믿고 버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Open D tuning입니다. 근음(根音)을 D로 낮추고 어울리는 음들끼리 조화롭게 맞춘 D-A-D-F#-A-D 음계입니다. 아무렇게나 개방현을 긁어도 시원하게 울리는 밝고 따뜻한 화음. 엉뚱하고 발랄한 #과 b에 발을 걸친 아이들이 제소리를 마음껏 내는 것. 세상이 정한 표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걸 두려워 말기. 오롯한 개인의 성장이 조화로운 우리가 되고 함께 여는 미래가 되는 것. 모두에게 열린 미래를 위한 Open D tuning과도 같은 변칙도 포용하는 상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나는 길일 것입니다.

04 맥락의 우주에선 가장 큰 개념, '표준'

표준이 규격과 기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준이 있어야 표준을 넘어섭니다. 표준은 변화의 주춧돌이며 혁신의 지향을 가리킬 소실점입니다. 경북교육은 생물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고 다양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세계교육의 표준은 어찌면 너무나 담대한 포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닿지 못할 소실점을 향해 끝없이 떠나는 여정처럼 말이죠.

저는 경북교육 K-edu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성장을 늘 돕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고민에 힘겨운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 주는 36.5°C의 따뜻한 동행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또한 K-edu가 이롭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창의를 발현하길 원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개인이 가장 참신하고 바람직한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365일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K-edu가 대안적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선 대안적 상상력의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둘러싼 365° 곳곳에 창조적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신우일신으로 K-edu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끓인 줄을 갈고 음을 고르던 저에게 어느 선배가 E-A-D-G-B-E라 알려주던 그 말이 단순히 표준 음계를 위한 스탠다드 튜닝만은 아니었음을 생

각합니다. 경북교육의 K-edu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성장을 돕고, 새롭고 이로운 미래를 만드는 창의를 발현하여, 대안적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E.A.D.G.B.E(Eureka for Agency and Development with G.B.E.)로 거듭나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

나의 기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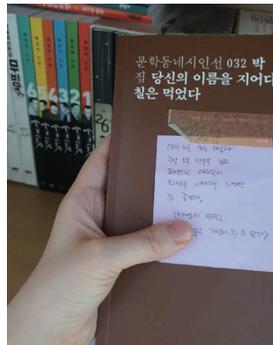
앞으로의 k-edu에 대한 기대

01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 학급 운영

① 선생님의 비밀 책방(교탁 속의 보물찾기)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어 교사라서 평소에 청소년 도서, 시집, 웹툰까지 다양한 책을 가지고 있어서 학기 초에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하나 둘씩 교탁 아래에 꽂아 두었다. 단연 인기 있는 것은 웹툰이었다. 독서의 시작은 흥미다. 흥미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 나의 비밀 책방은 웹툰 덕분에 아주 성공적이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도서 목록을 만들어 도서부원 학생들을 모아서, 도서 목록을 검토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책을 선정하여 구입하였다. 책을 읽을 때마다 피드백을 받아, 반 학생들에게 홍보했다. 책의 표지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추천 이유를 써 두었다. 그랬더니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교실에서 책을 보거나, 아침 자습 시간에 시집을 읽고 있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남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도서가 되었다. 우리 반에는 시를 사랑하고,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② 우리 반 북클럽

책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주 멋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 반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것은 나누면 더 좋아지는 법. 그래서 나는 우리 반 북클럽을 만들었다. 북클럽 1기의 책은 전태일 평전이였다. 예전부터 읽어보아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구입했는데, 학생들과 함께 읽고 싶었다. 북클럽 2기의 책은 비거니즘 만화였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는 비건의 세계를 자극적이지 않지만 아주 친숙하게 풀어낸 책이다. 북클럽은 한 달 전에 도서를 구입하여 나눠 가지고, 1학기 기말 고사가 끝난 뒤 학교 밖 작은 한옥 카페 방에서 만났다. 처음에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 독서모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흘러 4시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역시 내 예상대로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슬슬 다음 북클럽 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다음 북클럽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화나서 방향 뒤흔는 튜브

오늘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가볍게 얘기한 하다가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비거니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같이 수다를 떨었던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비거니즘은 단순 채소만 먹는것 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저, 였었는데 비거니즘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선생님과 더욱 친해진것 같았고 다음번에도 이런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더 해보고 싶네요

오후 9:17

청소하는 튜브

음식 너무 맛있었고 카페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어요!! 비건은 완전 채식과 같은 말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거니즘을 더 건강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오래 간직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겨 기분이 좋아용 / " 〇

오후 9:18

피스메이커 프루도

책을 즐겨읽는 편이 아니라서 독서 모임을 할때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전태일의 행동과 나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며 비교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많은걸 배운거 같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했다.
소수의 사람들과 여행 온 것 처럼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활동하는게 좋았고 소소한 행복의 기억이 줄어든던 때에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된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 보았던 핑크 구름들까지 완벽했던 독서모임이었다.

오후 12:42

아 오늘 너무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비거니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물 또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사 한 번 느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용

오후 9:36

초롱초롱 내오

구성원이 너무너무 어색해서 책 이야기만 하다가 사회성 있는 책 리뷰에만 만족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모임이었음
전태일 평전을 꼭 읽어보고 싶어서 바로 신청했지만 생각만큼 쉽게 읽히지 않아서 힘들었다...그래도 성과 애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보다 즐겁게 들인해서 책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나에게 백 이상적인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분노와 울음으로 일궈낸 산물이란 걸 느꼈다. 한 인간이 인류에 대해 이런 사랑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경이로움. 비슷한 걸 느꼈다->인간 일반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오늘 하늘을 꼭꼭 채운 구름들은 완벽한 엔딩이었고 팔방수는 맛있었다

오후 10:12

“누군가의 분노와 울음으로 일궈낸 산물” 뭐야 너무 멋지잖아. 우리가 한 대화의 예기조를 모두 담아줘서 고맙워

오후 10:18



③ 열·공부대 1기·2기

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중3을 맡게 되면, 학생들의 진학에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반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것이 '열공부대'였다.

첫 중간고사 때는 반 학생들에게 매일 함께 공부하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인증하면 작은 응원 간식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시험 2주 전부터 12시 전에 매일 자신이 정한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애들아, 혼자 공부하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함께하니 좋지 않아? 우리 열공부대는 다음 시험 때 진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열공 부대를 <열품타>라는 공부 시간 체크 앱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하나 더 친구와 짝을 지어서 함께 성적이 가장 많이 상승한 팀을 정하여 강력한 베네핏이 있음을 예고하였다. 그러자 반 아이들은 어떤 친구와 함께 공부할지 정한 후 나에게 알려주었다. 기말고사는 반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다. 주말마다 <열품타> 최고시간을 인증한 학생에게는 간식을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 가장 성적이 많이 상승한 두 팀과는 함께 식사 및 문화 체험(롤러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반 행사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인 행사였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최상인 프로그램이었고, 또 공부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④ 우리들의 기념일

올해 다양한 학급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반 아이들과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만난 지 100일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100일 전날 미리 작은 꽃을 준비하고, 학급 교실 앞에 100일을 기념한 시 한 편을 꽃아 두었다. 학급 게시물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마지막 시간에 동아리 수업을 다녀온 학생들이 없을 때, 간식을 준비하여 깜짝 이벤트를 했더니, 잊지 못할 순간이라며 기뻐했다.

⑤ 너의 최선을 응원하는 법,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고입에 대한 부담감이 아이들을 짓누르는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커스텀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하였다. 첫 2학기 시험인 영어 듣기 시험에 맞추어 “@@아, 어떤 길을 가도 정답은 너야!”라는 문구가 적힌 컴퓨터용 사인펜을 나누어 주었다.

대중 1시간 전 0명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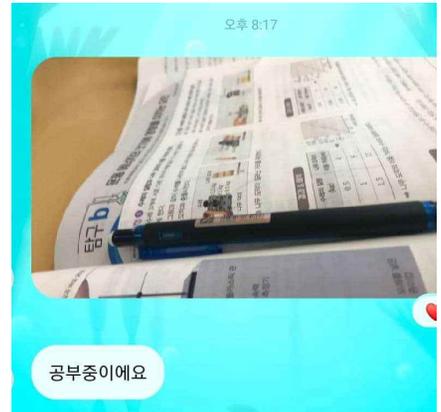
깨 공부하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이 무엇을 인증할지 정해주세요.

≡ 인강 들은거 인증할게요.
≡ 영단어 100개 할게요. 등등

신이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12시 전 까지 사진 올려주세요!
14일 8시 30분 선생님이 체크할게요!

각 별점 0.5점
했을 때 별점 1점
벌점 2점 미션 실패**

부터 시작입니다!
면 미룰 수 있지만, 같이하면
박이 있을거예요. 부디 즐기면서 같이 공부해요 ^-^/



02 작가님, 보고 싶었어요!

책 읽는 학교 & 도서관 연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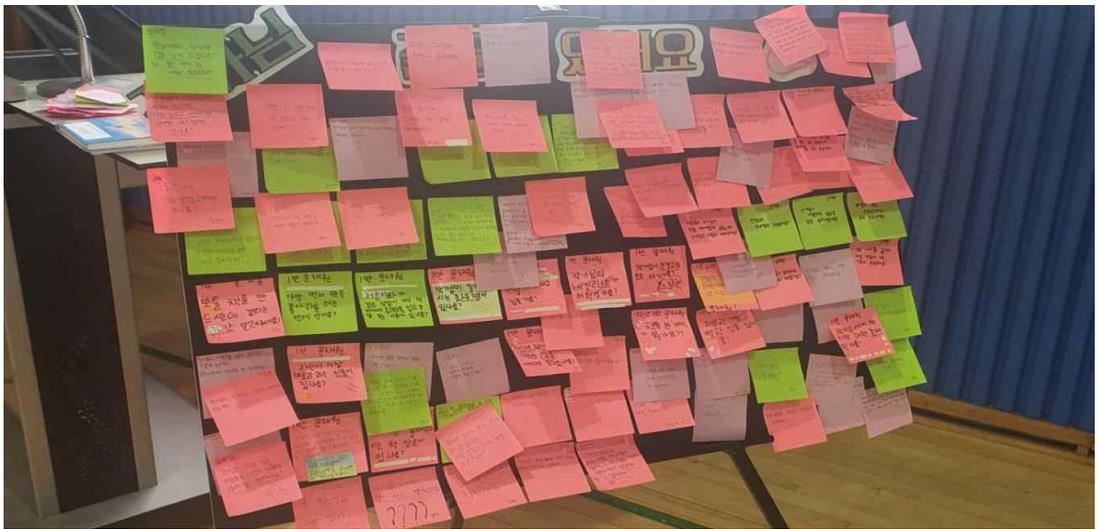
작년과 올해 예천 지역 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우리 학교에 「페인트」의 이희영 작가와 박준 시인을 모실 수 있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쓴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실현 시켜주신 도서관에 너무 감사 드린다.

아이들은 이희영 작가를 만나기 전에 작가를 만난 적이 한번도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작은 읍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넓고 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다양한 인문학 강연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실현시켜 준 것은 지역 도서관 연계 사업이었다. 단위 학교에서 작가를 직접 섭외하는 일은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면 수월하게 아이들이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 이희영 작가 강연이 결정되고 1학년 아이들과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작가님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 모듬을 꾸렸다. 독서 모듬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매일 책을 읽고 카톡 방에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어떤 구절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 했다. 그 중 가장 열심히 한 모듬은 보상을 해 주었다. 이희영 작가 강연 날, 우리는 책의 포스터를 준비했고 수백장의 포스트잇에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했다. 포스트잇에 있는 질문 이 외에도 아이들은 끝 없이 손을 들어 질문했고, 강연에서 적극적이었던 아이들 덕분에 다음 해에 다른 작가를 지역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

박준 시인 강연이 결정되고, 전교생에게 시집을 배부했다. 수업 시간이 시작할 때 시를 한 편씩 낭독하고 매일 감상을 쓰는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시인에게 자신이 쓴 시를 직접 피드백받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쓴 시를 읽고 강연에 와 주셨다. 덕분에 아이들은 박준 시인으로 부터 자신이 쓴 시에 대한 감상과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1학년 때는 소설가를 만나고 2학년 때는 시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2학기에는 예천여자 중학교 출신 임수현 시인 강연을 준비하여 아이들은 매일 수업 시간에 동시집을 읽고 *하브루타 수업을 하고 있다. 동시를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아이들이 만든 질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동시를 동화로 구성하여서 강연 앞에 낭독극으로 꾸밀 예정이다.

*하브루타

짜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방법



03 좋아서 쓰는 우리

책 쓰기 동아리

좋아서 쓰는 우리 아이들과 책 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책 쓰기 동아리는 두 번째인데 아이들이 자기 책을 쓸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소설 3권, 시 4권을 출판할 예정이다. 그 중에 중도입국자녀인 태국인 아이의 태국어 - 한국어 이중언어 책 출판도 앞두고 있다. 낯선 한국에서 생활하는 아이에게 글쓰기란 꿈이고, 심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학생이 쓴 태국어 시를 번역기로 돌려서 출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태국어 한국어 번역기가 학생이 쓴 시의 매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을 알고, 태국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사신지 오래된 태국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문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추가 신청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있는 언어로 그 학생이 쓴 글에 더 가까운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책쓰기 동아리 아이들은 1학기부터 모여서 자신이 쓰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글을 합평해 주면서 열정적으로 집필하고 있다. 아이들이 쓰고 있는 책은 올 연말 나올 예정이다. 교내에서 북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어 교내 작가님들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



04 연기하는 우리

경북 낭독극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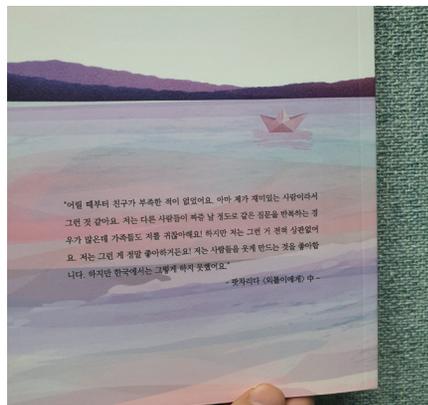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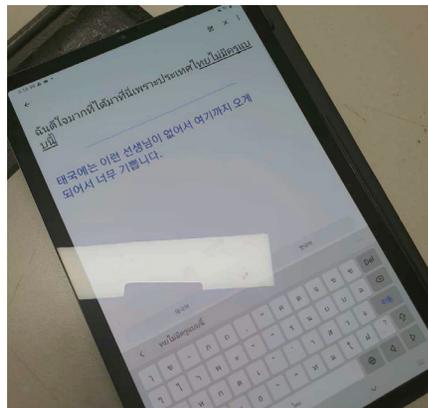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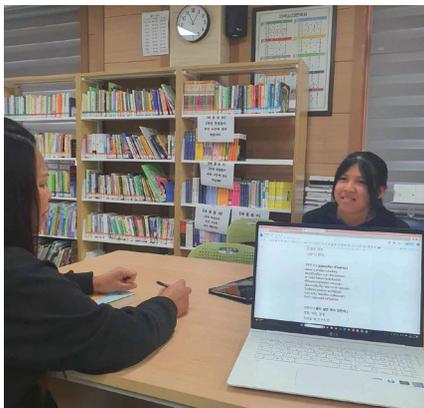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연극을 배울 수 있었다. 국어 교과서에 연극이 나올 때, 전문 연극 강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강사로 모실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낭독극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소설 <소나기>를 문학 작품 재구성을 통해서 낭독극 대본으로 바꾸고 낭독극 공연까지 실시했다. 아이들이 대본을 외우지 않고도 목소리로 연기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11월 경북에서 열리는 제3회 낭독극 대회에 아이들과 함께 출전한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참가학교가 많지 않은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낭독극 또는 연극의 매력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으며 좋겠다. 앞으로는 교사를 대상으로한 연극 연수 또는 문화 예술 연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아이들이 경북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05 긴급! 다문화 언어 교육

학교에 중도 입국 자녀가 입학했다. 태국인으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었다. 그 아이의 한국어 교육을 맡아줄 강사를 구하기 어려웠다. 경북 교육청에는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교내 국어 교사인 내가 한국어 교육을 직접 했다. 경북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우리 반에도 30% 학생이 다문화 학생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처음에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거나, 말에 대해 오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것을 보고 다문화 언어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풀을 마련해서 중도 입국 자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대학원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앞으로 더 늘어날 다문화 학생들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6 꼭 필요한 학교 복지 사업

안동 길주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 복지 사업이 처음 시작되어서 학교에 복지실이 설치되었다. 그때만 해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라서 '학교에 꼭 복지 사업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나였다. 도입 첫해에 우리 반 학생 중에 절반이 복지 대상자였다. 그때 학교에 오신 젊고 열정 넘치는 사회복지사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복지실 이름도 '엔돌핀 충전소' 복지 대상 아이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고 그곳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이름이었다. 복지사님의 의도대로 아이들은 엔돌핀을 방앗간처럼 드나들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굿모닝 티처>라는 프로그램이었다. 길주 중학교에는 버스로 등학교 하는 아이들이 버스 시간 때문에 7시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 그림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시계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그중에 한 아이는 게임 중독으로 엄마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작은 소리로 "선생님, 공부가 재밌어졌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 이후 나는 학교 복지사가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했다. 학교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만 계신 분들은 학교 복지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울 초 나는 우리 학교에 학교 복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단독으로 학교 사회 복지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인근에 호명 초등학교와 함께 신청해서 복지 사업 혜택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반에 30%가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사이에 사소한 갈등들이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복지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학교 복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인원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번 질의했지만 규정에 대한 답만 여러 차례 들었다. 호명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두 학교 중에 인원이 더 많은 호명 초등학교에 복지사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복지실로 사용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두 학교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웠고 우리 반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했을 때에도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07 작은 학교를 살려주세요

첫 발령지부터 항상 큰 학교에 근무한 나는 작은 학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예천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용문 중학교가 있는 소나무가 너무 멋져서, 감천 중학교의 봄이 너무 예뻐서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에 근무해 보고 싶었다. 아이들이 작은 만큼 하나하나 더 손이 많이 닿고 그만큼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갑자기 예천의 모든 학교는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되었다. 매일 어떤 과목을 어느 학교에서 줄이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모두들 예천 또는 주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혹시나 먼 지역으로 가게 될까 봐 걱정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공교육의 질이었다. 풍양중학교는 교사 8명을 4명으로 줄이면서 부장과 담임을 겸해야 하고 그마저도 겸무를 나가서 학교에 있어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괴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가장 속상한 것은 풍양중학교에 상주하는 국어 교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어는 보통 일주일에 4 혹은 5차시 수업을 한다. 매일 아이들과 마주하며 긴 호흡을 하는 것이 교과목의 특성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소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레포 형성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학교에 국어 교사가 없어지면 여러 명이 수업을 조각조각 가져가야 한다. 겸무의 특성상 한 사람이 겸무 학교를 매일 나갈 수도 없다.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 국어 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학교의 아이들은 교무실 문을 열고 "선생님, 오늘 수업 뭐해요?", "도서관에서 수업하면 안 돼요?", "저희 남아서 글 써주세요?"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겸무로 오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글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는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을 겸무 선생님이 오시고, 과목을 조각조각내는 그런 수업을 받게 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 마음껏 읽고, 신나게 쓰고, 그 모든 것을 누렸으면 한다

PART 3

보다, 경북교육

누군가, 세계교육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북교육이란 무어냐 묻는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를 '체험', '온라인', '글로벌', '디지털 전환' 등 4가지로 꼽아보았다. 경북교육의 대표 분야의 현장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싶어 바쁜 현장 속에서도 잠시 짬을 내어 준 담당자 몇을 만나 경북교육의 2024년 다가올 경북교육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2024년, 세계교육의 표준, 경북교육의 내일을 미리 만나본다.

체험 분야

- (1) 수학체험관
- (2) 발명체험관
- (3) 한국어교육센터

온라인 분야

- (1) 공동교육과정
- (2) 온라인학교
- (3) 사이버독도
- (4) 사이버박물관

글로벌 리더 분야

- (1) 외국유학생 입학
- (2) 단디짜공
- (3) 교육정보화지원

디지털 전환 분야

- (1) 디지털 전환, 가치 창출
- (2) 디지털 전환, 업무 경감
- (3) 온무실 두 돌을 맞이하며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온라인 교무실

2022 학년 행동 요율 - 2023 학년 행동 요율

[입문 교재 조회](#)
[특별실익용](#)
[학년별 활동사진](#)
[그린스캐드스쿨](#)
[강원서식](#)
[수업 공개실 사용](#)

발령(교무) **오늘 할 일** **업무별 자료실**

2022년 11월 23일(화)
 * 교육청에 방문점검(11월 21.22 - 11.24)
 * 새마을 2022년 4차

명심록 센터 (교무실에 있어요)
 (교무부, 심정순) 2학기 교무(사) 교육용지 출결 신청 등록(문보)
 (교무부, 심정순) 1학기 교무(사) 교육용지 출결 신청 등록(문보)

1. 학년별 수업 교구 목록
2. 1학년별 수업 교구 목록
3. 1학년별 수업 교구 목록
4. 1학년별 수업 교구 목록





"상상한 대로, 꿈꾸는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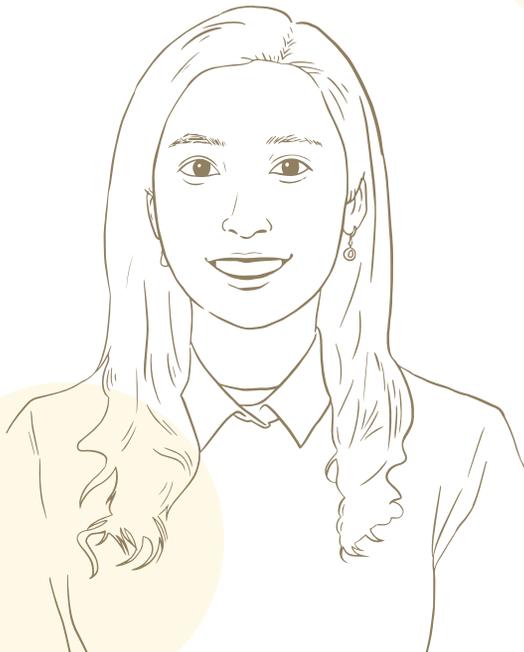
체험 분야

-
- (1) 수학체험관
 - (2) 발명체험관
 - (3) 한국어교육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수학을 체험하며 즐기는 문화가 되고 놀이가 되는 곳!

백상숙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경북은 현재 안동, 상주, 칠곡, 경산에 4권역 수학 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수학체험행사, 학교단체 프로그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수학클리닉,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육공간, 2층은 유아 체험공간과 북카페, 3층은 수학의 역사 및 실생활에 활용되는 전시체험공간, 4층은 인공지능·첨단기술·예술과 수학이 융합된 미래형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포항에 경북교육청수학문화관이 건립되면, 25년부터 학생과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4권역의 수학체험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학교육 문화 확산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기자재를 갖춘 다양한 교구 체험, 강연, 캠프, 동아리 활동, 수학클리닉 상담, 축제 등 탐구 체험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수학교육콘텐츠 구성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타 교육기관이나 마을공동체와 활발하게 협업을 해서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

발명체험교육관

한수용(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관광 필수 코스 황리단길이 있고, 황리단길에 들르면 꼭 보아야 하는 곳 '발명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발명체험교육관은 '발명'이라는 과정을 체험을 통해 익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 관람객은 잘 보기 어렵지만 실제 발명체험교육관(전국 최초로 건립된 곳이라는 틈새 자랑)은 '영남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상북도내 20개나 넘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활동과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하는 지원센터죠.

발명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방학, 주말 등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알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이런 과학이나 발명, 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곳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하고 그런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체험센터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미리 신청을 하고 센터를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하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모든 종류(과학, 메이커, 발명, 수학, 안전)의 센터를 모두 체험하였다면 완주 인증 기념품과 완주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싶고, 그것을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면 방학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체험센터들을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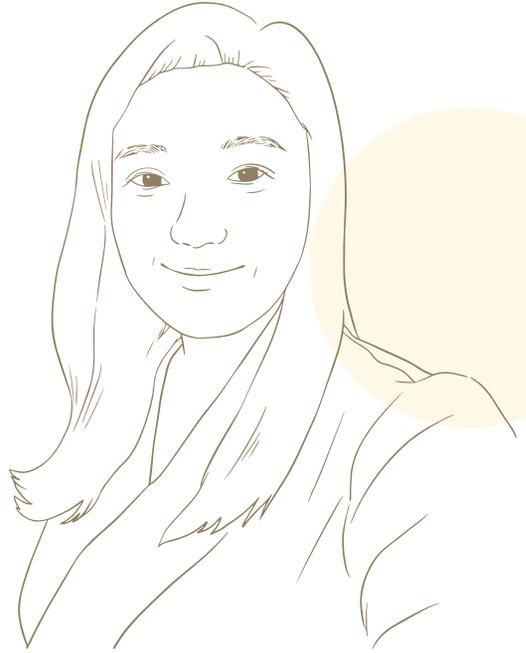


전국 최초 공립 한국어교육 전문기관,

경주에서 문을 열다!

박지혜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초등파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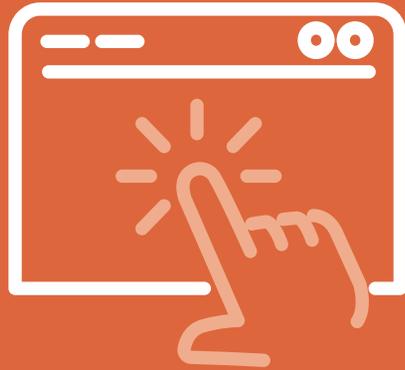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전국 최초 한국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공립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주는 관광도시인데 왜 경주에 한국어교육기관이 세워졌는지 많이 의아해하세요. 경북의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외국인 학생 수가 50%가 넘는 학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3년 3월 21일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기수별로 운영이 되고 한 기수마다 3개월 기간 동안 80명 정원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대상은 경주 관내 초·중·고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중 기초 한국어가 되지 않아 학교 적응 및 수업이 힘든 학생이 대상이에요. 1, 2기는 155명의 학생들이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고 현재 3기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센터에서는 매일 한국어 교육 4시간, 방과후 (예체능) 2시간, 총 6시간씩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여름, 겨울 특별프로그램, 한국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센터의 모든 선생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교육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되지 않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도 안 되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마음을 닫은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학생들 하나하나 개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어느새 마음을 열고 다가왔어요. 환한 미소로 즐겁게 센터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보람을 크게 느꼈어요. 수료 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는데 그동안의 고생이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On, 생각을 잇다 마음을 켜다"

온라인 분야

-
- (1) 공동교육과정
 - (2) 온라인학교
 - (3) 사이버독도
 - (4) 사이버박물관



원격화상수업도

세계교육 표준으로 성장하는 중~

김은희(경상북도교육청 유치등교육과 장학사)

대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에서 원격화상수업을 왜 운영하나구요? 놀라지 마세요. 경북 안에서 운영 하던 원격화상수업을 작년에는 대구와, 올해는 전남과도 운영하고, 심지어(?) 뉴질랜드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화상수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교 간, 타시·도 간, 도농(都農) 간 다양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며 함께 배워가는 교육 활동입니다. 또래 집단이 작고, 학습 환경에 제약을 받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불편을 겪었던 학교(급)에게 원격화상수업은 새로운 기회이고 진정한 배움의 확장입니다.

경주 유림초와 전남 순천북초의 5학년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만나 지역의 유적지도 소개하고, 온 작품 읽기도 하고, 관광지지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영호남이 교류하는 멋진 수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주와 순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경주와 순천의 특산물을 사서 택배로 보낼 상자를 미술 시간에 예쁘게 꾸미고, 거기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도 함께 보냈답니다. 경주와 순천은 원격화상수업을 통해 영호남 지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겠지요?

계절이 정반대인 뉴질랜드와 원격화상수업을 운영한 죽도초의 5학년 학생들은 K-팝을 시작으로, 지금 뜨고 있는 K-푸드, 그 중에 겨울에 딱 먹기 좋은 붕어빵, 火닭면, 약밥을 소개하며 K-컬처 홍보에 앞장 섰답니다. K-edu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실현을 위해 원격화상수업도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경북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육과정과 수업 교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손기화(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학교에서는 과목개설에 대한 부담, 학교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개별학교에서는 과목개설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전공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우리 경북에 필요한 최적의 학교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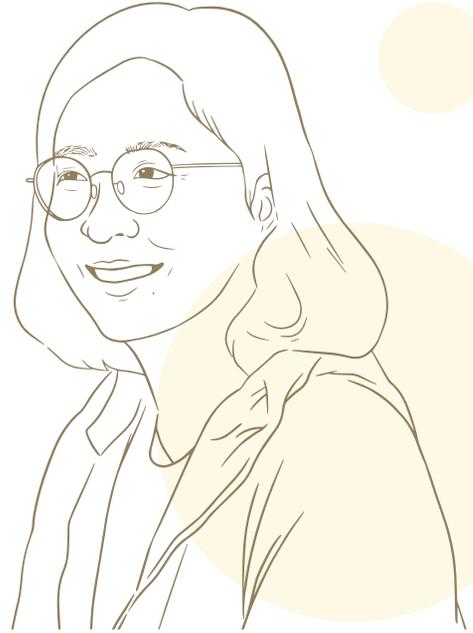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개별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주문해 과목을 개설하는 주문형 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하여 수강 희망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는 지정형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주문형 교육과정 수요 조사 결과, 25개 학교에서 60여개 강좌, 445명의 학생이 신청을 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원활한 온라인수업을 위해 경산지역의 유휴공간에 강의실과 기반 시설(인프라) 등 총 10개실의 규모로 구축하여 2024년 9월 1일에 개교 예정입니다. 온라인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공동 교육과정 기준을 준용하며, 정규교원이 배치되고 과목 분야에 따라 외부강사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학교의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교육의 세계 표준,

사이버독도학교!

박현경(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독도 관련 영토 주권 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청은 2021년 4월 사이버독도학교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이버독도학교는 개교 2년 만에 경북을 넘어 전국의 독도교육 온라인 플랫폼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전국 독도 퀴즈쇼, 독도교육 올림픽,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릴레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의 초·중등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한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릴레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3,195명이 참여하여 사이버독도 학교가 전국 독도교육의 중심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이버독도학교 누적 방문자 수는 120만 명에 달하며, 독도교실 초·중·고급 수료자는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독도교육의 중심점 역할에서 더 나아가 독도교육의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사이버독도학교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갖추고,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를 탑재 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83명이 사이버독도학교에 가입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영상, 자료 등을 제작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5월에는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이 사이버독도학교를 이수 하고 독도 탐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이버독도학교는 독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독도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사이버독도학교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완성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독도 탐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이버독도학교는 독도교육의 세계 표준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을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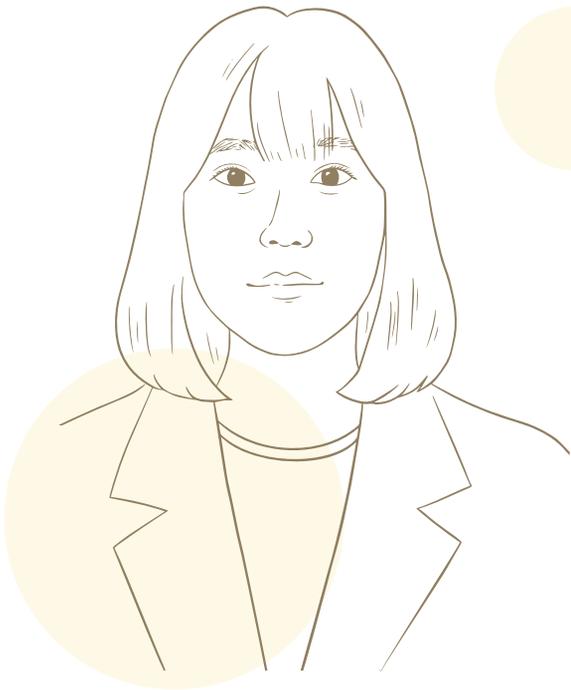
이보옥(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기록연구사)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은 폐교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까?하는 고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TF 회의를 거쳐 단순히 분산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온라인 형태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1년 3월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약6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우수사례 소개, 탑재 자료의 공유 요청 등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은 참여형 공간으로, 과거가 개인의 기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없는 폐교 동문들을 위하여, 직접 본인이 사진을 업로드하여 추억을 나누며,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안부를 남길 수 있는 "추억 나누기"공간을 마련하였고, 1910-1990년대의 사진자료와 1900-1990년대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경북교육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경북 교육 역사를 연결하고, 개인의 기억이 빈 공간을 메우며, 다채로운 경북교육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록의 가치는 차곡 차곡 작은 이야기들을 쌓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기록들을 모으고 관리하여 촘촘하게 이어진 경북교육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위에 우뚝"

글로벌 리더 분야

-
- (1) 외국유학생 입학
 - (2) 단디짜꿍
 - (3) 교육정보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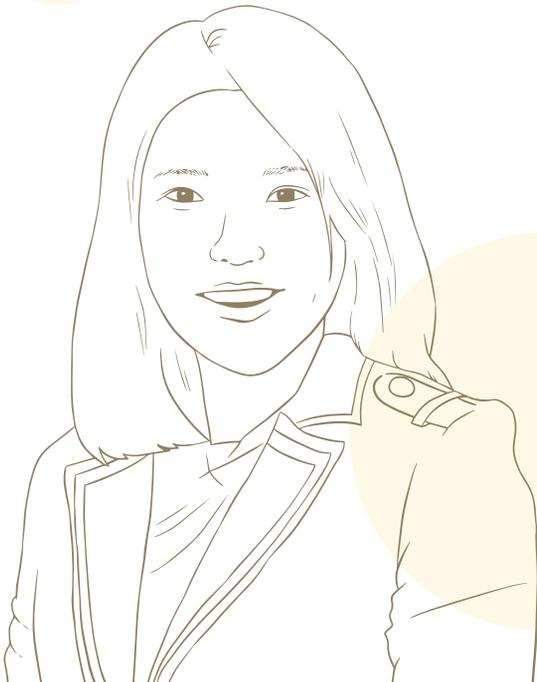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지역을 품고 세계로 가는 경북 직업교육

김미정(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산업현장은 '노동력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지요. 직업계고의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은 심각한 지방 소멸 문제를 푸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인 경북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유학생은 지역 기업의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유학생의 한국어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매뉴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학생 유입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직업계고의 충원률 제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지한파 양성을 통한 국제 관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취업비자는 없습니다. 우수한 유학생들이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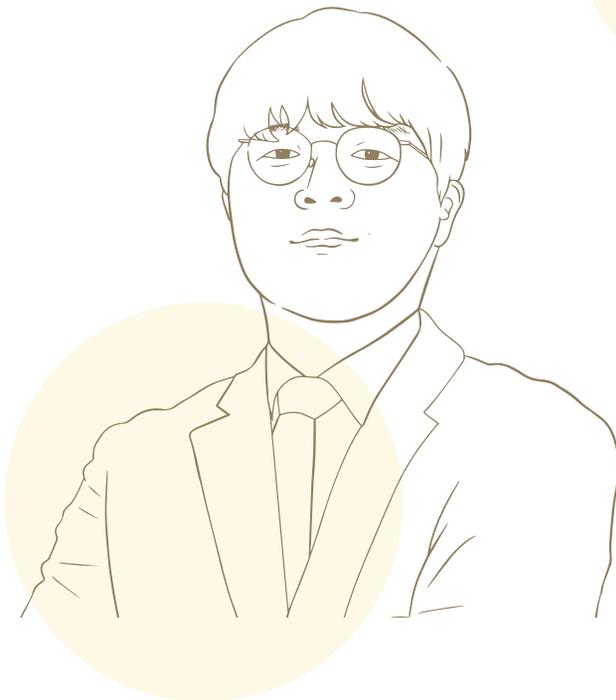
양성 교육을 선도하다.

조준섭(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최근 수산계고등학교 국내 학생들의 어선 승선률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무작정 고소득만 보장된다고 해서 취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10년간 학생들의 취업 지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병역특례, 고연봉으로 학생들이 승선하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내 원양산업 대기업에서 해외 유학생을 입학시켜 국내 우수 해기인력 교육을 실시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때마침 경북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본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9월 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지원한 학생 8명에 대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였고, 심층 면접을 통해 지원한 동기, 해기사 되고자 하는 목표, 한국어 수준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여 스마트운항과 학생 최종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입학 전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입학 후에는 국내 우수한 해기사 양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경북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은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 구조 형태와 산업체 인력 공급 문제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학생들의 입학 후 교육 활동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다른 원양산업 기업에서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디짜꿍,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감동 성장 해외체험연수

박진숙(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사)



지금까지의 해외체험연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업무 추진 실적이 탁월한 교원 중심의 연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추진한 '단디짜꿍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해외체험연수'는 대상 선발에서부터 프로그램 구성, 성과 평가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그 효과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체험연수였습니다.

먼저 연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기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 공모전'을 지난 5월에 실시하여 30편의 스토리를 선정하고, 스토리 속 주인공인 학생 30명과 학생을 지원한 교직원 30명이 단디짜꿍이 되어 8월 초 일본과 대만을 2기로 나누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연수 참가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가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3박 4일의 연수 기간 내내 짜꿍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생애 최초의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단디짜꿍과 함께 하는 해외체험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더 많은 감동 성장 스토리가 발굴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한 많은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행복한 감동 체험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따뜻한 경북-R컴퓨터

국제 나눔을 통한 경북교육의 따뜻함, 세계 속으로!

이대하(경상북도교육청 예산정보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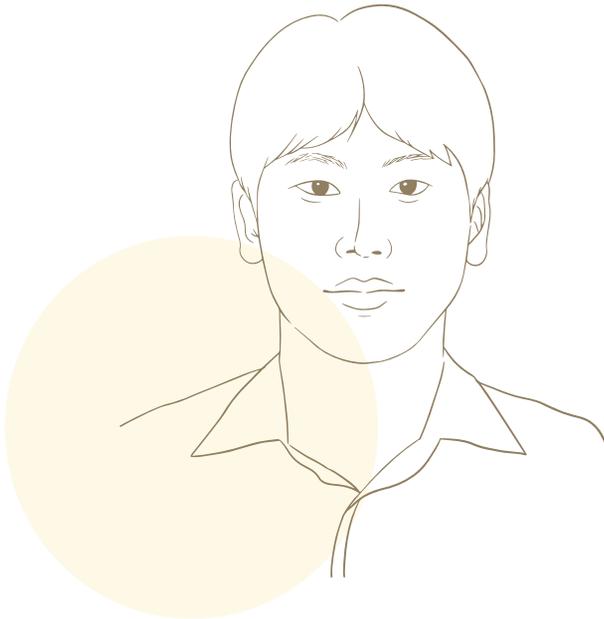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환경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대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학교에는 각종 정보화장비 보급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용장비 처리에 상당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업무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도내 전학교에 대한 불용장비 일괄 수거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거된 장비의 양품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따뜻한 경북-R컴퓨터”는 탄소중립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국제나눔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북-R컴퓨터는 18년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에 184대 지원을 시작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540여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테말라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새컴퓨터와 정보화교육 활용에서 차이가 없고 더 많은 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북-R컴퓨터는 추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원국과 수량을 늘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따뜻한 경북 디지털 교육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몽골 등 경북R-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전세계에 골고루 전파할 수 있도록 멈춤없는 국제 나눔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분야

-
- (1) 디지털 전환, 가치 창출
 - (2) 디지털 전환, 업무 경감
 - (3) 온무실 두 돌을 맞이하며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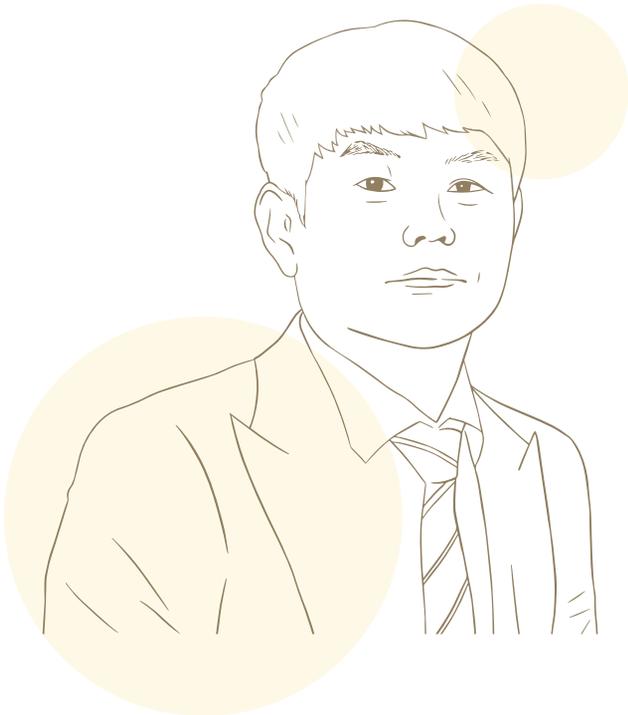
업무 경감 너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정기호(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장학사)

‘디지털 전환’은 전산화나 자동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업무경감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이라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죠.

업무경감으로 먼저 이야기해보죠. 업무경감은 1970년대부터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총량을 줄이든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나누든지 업무를 정량화하든지.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 서 학교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한정된 재화로 업무 총량 감축과 인력 확충은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루틴화된 업무를 정량화하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표나 학기초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행정 위주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간편한데다 확대보급까지 할 수 있는 학교업무 지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 형태를 공동 문서 작업이나 클라우드 기반 작업 등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업무(상대방)를 이해하고 그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까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뿐 아니라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학습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경감이라는 1차원적인 것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을 통한 성장이 일어나, 업무역량과 수업역량이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의 업무경감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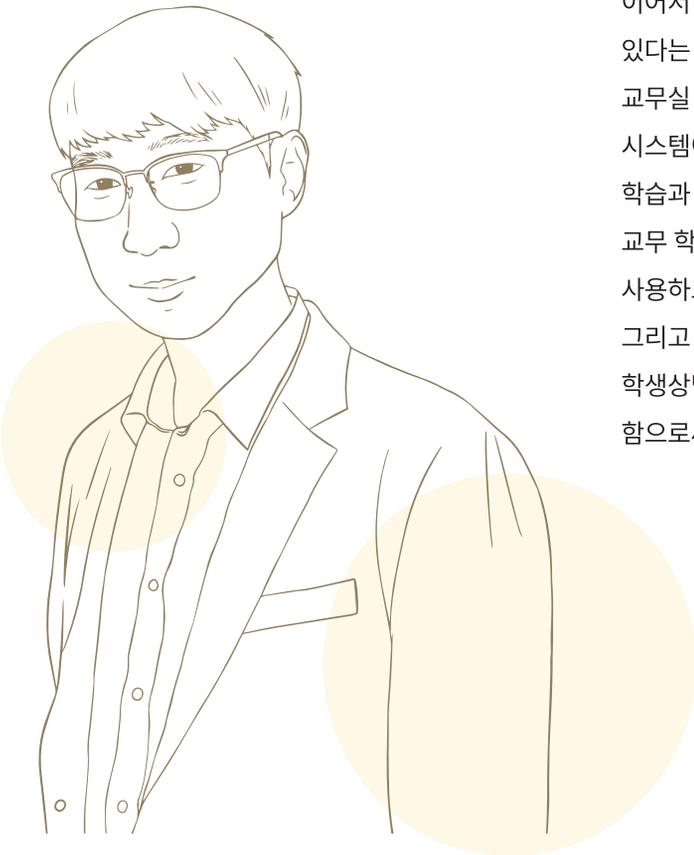
양영진(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주무관)

2023년은 경북교육이 디지털전환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업무경감 디지털 전환 사업은 3S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Save), 신속하게(Speed),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Service)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업로 시작한 사업은 학기초 학교에서 종이로 받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었죠.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및 각 지역청 학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활용 온라인 동의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나타날 만큼 호응이 좋아서 현재 경북 전역으로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에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온라인 교무실 프로젝트 온무실과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무실은 교무실에서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문서 수합, 정보 공유 등을 하는 교무 학습 협업 프로젝트인데 많은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은 선생님분들의 학생상담 일정을 전화대신 온라인으로 예약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교직원 물품 공유 플랫폼 '따알기 마켓'은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교구 등을 공유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서류 작업 등을 엑셀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 낭비를 줄이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계약서류 자동화 프로그램, 교원 결보강 지원 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을 연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북교육청 전 기관과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협의하는 워킹 그룹(Working Group)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IT계에서 제일 화두가 된 분야는 인공지능이지 않을까요? 사람과 대화하듯이 정보를 알려주는 척척박사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경북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하여 네이버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와 발맞춰 G-AI LAB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인공지능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I LAB은 교원 50명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결과로 생성형 AI가 한창 열풍인 3월에 ChatGPT를 이용하여 로그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온실이-GPT', '보도자료 생성기',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함께하는 '질문 생성기' 등 10종을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온무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한번 접속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 생성형 AI를 기존 학교지원종합자료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직원에게 업무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개발하였습니다. 교직원 200여명이 학교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집대성하여 만든 이 누리집은 방대한 자료로 몹시 호응이 좋아요. 여기에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이외의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 통합하는 통합 플랫폼으로도 구상 중입니다. 이렇듯 경북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각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디지털 업무 전환

온무실 두 돌을 맞이하며

김금순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교감)

교감 김금순 쏟아지는 메신저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무실을 준비한 것이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특히 동학년 협의회는 잘되고 있으나 학년 간 수업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년별 교육과정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무실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두 돌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사 권길성 저는 올해 전입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이 온무실이었습니다. 필요한 문서 서식을 업무 포털에 들어가지 않고 내려받을 수 있고, 활동 사진을 올리거나 자료 수집이 정말 편했습니다. 복무도 근무 상황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출장 파악이나 결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온무실에 올리면 바로 A/S가 이루어져 편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 온무실 이야기를 하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교사 김아람 저는 온무실의 목적 중 하나인 수업 공유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학년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온무실에서



프로젝트 수업 계획부터 과정, 결과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학년 프로젝트 수업, 학생 생성 교육과정 사례가 매년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새로 전입하거나, 학년을 바꾸어 수업을 준비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교사 마경연 제가 생각하는 온무실의 장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들의 아카이브 역할입니다. 예년의 자료들이 차곡차곡 모여져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나, 막막할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다른 학년 수업 자료나 활동 공유가 가능합니다. 온무실 학년 탭에서 다른 학년 프로젝트 활동들을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접근성과 시간 절약입니다. 업무포털 접속 없이도 드라이브를



활용하니 모바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메시지로
 쏟아질 내용이 매일 깔끔하게 정리되어 게시되니
 쪽지나 회의가 줄어들어 편리합니다.

교사 최현범 저는 업무별 현안 사항을 한 눈에 파악
 하기 쉬워서 좋았습니다. 처음 학교를 이동해 왔을
 때 미리 캔버스, 학교종이 앱, 학교안전공제회 등
 계정정보나 비밀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부서별 폴더도
 함께 공유되어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전년도 자료를 찾기 쉬웠습니다.

교사 조성철 저는 따뜻한 모두의 공간으로 온무실
 이 거듭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자료를 올리다 보니

부서별 안내 사항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게시물을
 정리해서 제출과 안내로 구분하거나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등 가시성을 높이면 좋겠다고 봅니다.
 공유 드라이브 폴더 구조와 파일명 등에 대한
 통일성을 살려 정리하면 자료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매일 확인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것은 메신저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권은주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온무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가지
 수합하는 일들이 많은 학교 특성상 온무실의 공유
 드라이브 작업은 매우 유용했고 메신저 쪽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쪽지 폭탄을 나름
 대로 재구성하여 기록했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
 이 줄었고, 매일 확인하는 습관만 들인다면 학교
 전반의 일과 행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이 없는 협의회
 가 가능해서 친환경적이고 복사와 같은 자료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직 온무실을 사용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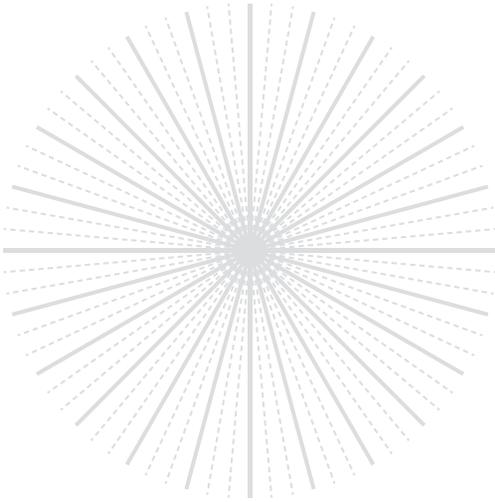
2023년 겨울호
Vol 04

발간등록번호	2023-48
발행일	2024. 1.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정책혁신과장 김현광
편집주간	정책혁신과 장학관 홍성중
발간위원	육계동부중학교 교감 최혜정 구미원당초등학교 교감 김홍일 진량초등학교 교사 박재선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 주무관 권순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 주무관 박정원
편집담당	정책혁신과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07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진진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 온 온

경북교육 WEBZINE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